골프계도 스토브리그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대형 신인의 부족 등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KLPGA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인 박지연이 삼천리그룹과 계약을 맺어 관심을 끈다. 사진제공 | KLPGA

골프 대형 신인이 없다 겨울 계약시장 '찬바람'

몸값 부담도 작용…박지연, 삼천리와 계약

"눈여겨 볼만한 선수가 누가 있나요?"

12월 골프계는 여전히 바쁘다.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을 앞둔 선수와 후원을 하려는 기업들, 그리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이 펼쳐진다.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 대기업의 스포츠마케팅 관계자들은 좋은 선수를 물색하기 위해 쉼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미 내년 후원 계획을 수립해둔 상황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정보싸움이 필수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대기업의 스포츠마케팅 관계자를 비롯해 선수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는 눈에 띄는 신인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올 초 큰 기대를 받고 KLPGA투어에 데뷔한 신인들의 성적이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그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 A사의 스포츠마케팅 담당자는 "신인들은 성적보다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최근 2~3년 동안은 신인들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몸값이 크게 올랐지만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면서 "신인들 중 1~2명 정도가 유망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예년처럼 수억 원에 이르는 계약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B씨는 "과거 신지애, 김효주, 백규정 선수처럼 한번에 투어를 장악할만한 실력을 갖춘 대어급 신인이라면 기업들의 영입 전쟁이 뜨겁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 정도 실력을 평가받는 선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싸늘한 스토브리그 시즌이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원을 하겠다는 기업들도 예년에 비해 신중한 모습이다. C사는 신인급 1명과 계약을 거의 확정지은 가운데 추가로 1명 정도 더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D사 관계자도 내년에는 기존 선수보다 신인급 1~2명을 추가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확 들어오는 선수가 없어 고민 중이다. E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신인급 보강은 1~2명 정도로 예년에 비해 축소했다. 대신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F사에서는 내년에 팀을 대표할만한 스타 영입까지 계획해 두고 있지만, 문제는 연봉이다. 몇 년 사이 스타급 선수들의 몸값이 크게 올라가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선수들 몸값은 성적과 함께 스타성, 이미지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무엇보다 몸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경쟁이다. 그러나 올해는 경쟁을 피하려는 눈치다. 여자골퍼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아져 자중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계약시장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계약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삼천리그룹은 1일 KLPGA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으로 내년 정규투어로 데뷔하는 신인 박지연(20)과 계약했다. 박지연은 내년 데뷔하는 신인 중 최대어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179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를 앞세워 드림투어 4승을 기록한 유망주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레전드들이 모교를 위해 출동했다. 대구상원고 유니폼을 다시 입은 양준혁 MBC스포츠+ 해설위원이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5 야구대제전' 광주일고와의 개막전에 선발출장해 첫 타석에서 외야플라이를 친 뒤 덕아웃으로 뛰어가고 있다. 개막전을 앞두고 상원고 대표 이만수 전 SK 감독과 광주일고 대표 이종범 MBC스포츠+ 해설위원이 악수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고 포수로 나선 SK 박경완 배터리코치가 제물포고전에 선발출전해 1회 삼진을 당한 뒤 멋쩍어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고척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화기애애했던 이만수-이종범 레전드 매치

2015 야구대제전 개막

이종범, 고의4구 작전으로 양준혁 도발
이만수 "내년엔 아무래도 내가 뛰어야"
김원형·박경완 배터리 등 볼거리 풍성

볼거리도 많고, 화젯거리도 많았다. '그라운드의 동창회'로 통하는 '2015 야구대제전'이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상원고-광주일고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렸다. 각 학교 야구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총출동하는 대회답게 덕아웃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수다와 떠들썩한 응원소리로 가득했다. 오전 일찍부터 비가 많이 내렸지만, 올해부터 대회 장소가 고척돔으로 바뀐 덕분에 선수들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볐다.

●양준혁 앞에 고의4구? 이종범의 심리전

개막전에는 프로야구의 대표적 레전드 스타들이 출동했다. 상원고는 이만수 전 SK 감독을 사령탑으로 내세우고, 양준혁 MBC스포츠+ 해설위원을 4번에 배치했다. 광주일고도 MBC스포츠+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종범·박재홍 해설위원을 각각 감독과 수석코치 자리에 앉혔다. 당연히 자존심 싸움에도 불꽃이 튀었다. 특히 광주일고는 4-0으로 앞선 3회 2사 2·3루서 3번 우동균(삼성)을 고의4구로 내보내고 양준혁과 승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작전을 직접 지시한 이종범 위원은 "당연히 현역을 거르고 은퇴선수를 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도 "양준혁이 결국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며 쾌재를 불렀다. 결국 경기는 광주일고의 9-2, 6회 콜드게임(5·6회 7점차 이상) 승리로 끝났다. 양 위원은 "지금 멘탈이 붕괴됐다. 다음에 설욕하겠다"고 짐짓 고개를 숙였고, 이만수 전 감독은 "내년에는 아무래도 하루 전에 미리 연습해서 나도 뛰어야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오지환-이학주, 4번 유격수 동갑내기 대결

"와, 우리 오랜만에 봤네." 충암고-경기고의 맞대결 직전, 홈 플레이트 뒤에선 두 장정의 쑥스러운 웃음꽃이 피었다. 충암고 출신인 해외파 유격수 이학주와 경기고를 졸업한 유격수 오지환(LG)이 모처럼 만나 악수를 나눴기 때문이다.

둘은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경북고 김상수, 서울고 안치홍, 광주일고 허경민과 함께 '고교 5대 유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이학주는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그냥 '4대 유격수'였다. 원래 실력 있는 친구들이어서 다들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오지환도 "결국 학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서 메이저리그 구단이 뽑아간 것 아니겠나. 발도 정말 빠르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잘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며 웃었다. 둘은 나란히 양 팀 4번 유격수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6년 만에 '맞수'로 진검승부를 펼쳤다.

●'영혼의 배터리' 김원형-박경완, 25년 만에 호흡

전주고는 이날 3경기에 참가한 6개 고교 가운데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제물포고를 상대로 3번 1루수 박정권(SK), 4번 좌익수 최형우(삼성)가 선발출장했고, 신용운(삼성)도 덕아웃에서 후배들을 응원했다. 무엇보다 김원형 SK 코치가 선발투수, 박경완 SK 코치가 2번 포수로 나서서 다시 호흡을 맞췄다. 둘은 학창시절은 물론 쌍방울과 SK에서도 늘 프로야구 최강의 궁합을 자랑했던 '영혼의 배터리'다. 김 코치는 "전주고 유니폼을 입고 함께 하는 건 고3 때 이후 25년만이라 감회가 새롭다"고 귀띔했고, 박 코치도 "지금 원형이 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쑥스러워했다. 그러나 김원형이 공을 던지고 박경완이 그 공을 받는 모습이 바로 야구대제전의 의미를 상징하는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시절의 유니폼을 함께 입고 나란히 선 두 코치가 연신 싱글벙글했던 이유다. 고척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2015 야구대제전 1회전 결과
(2일 · 고척스카이돔)

	1	2	3	4	5	6	R
광주일고	1	0	3	0	2	3	9
대구상원고	0	0	1	0	1	0	2

〈6회 콜드게임〉

	1	2	3	4	5	6	7	8	9	R
경기고	0	0	0	0	1	0	1	0	1	3
충암고	1	0	0	0	0	0	1	0	0	2

〈8회 이후 승부치기〉

	1	2	3	4	5	6	7	R
전주고	0	0	1	0	0	0	10	11
제물포고	0	1	0	4	0	0	0	5

이학주 "미국? 일본? 조만간 결정"

SF 입단 제안 받아…일본 팀과도 협상
"무릎도 문제 없어…좋은 결과 있을 것"

미국에서 활약해온 해외파 내야수 이학주(25)는 내년 시즌 어느 팀 유니폼을 입게 될까. 그리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론이 날 듯하다.

이학주는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개막한 '2015 야구대제전'에 모교인 충암고 소속으로 참가해 "아직은 그 어떤 팀과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와 일본 모두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안으로 모든 게 결정될 것 같다. 그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주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시카고 컵스와 계약하며 태평양을 건넜고, 2011년 탬파베이로 이적해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갔다. 2013년에는 트리플A로 승격되면서 빅리그 진입을 노렸지만,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슬라이딩에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 결국 올해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돼 완전한 자유계약선수가 됐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와의 계약설과 일본 진출설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충암고 4번 유격수로 나선 이학주(왼쪽)와 경기고 대표로 출전한 오지환(LG)이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양 팀의 경기 도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고척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com

이학주는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일본 팀과도 협상을 하고 있다"며 "내가 사인하는 것이니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술한 무릎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움직이는 데 부담도 없다"며 "내 스피드를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다 좋아졌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이학주는 이날 야구대제전 경기고 전에서 2회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얕은 중견수 플라이 때 2루까지 밟았다. 이어 3루를 훔치고 상대 투수의 짧은 폭투 때 홈까지 파고들며 빠른 발을 한껏 과시했다.

이학주는 "미국에 있으면서 많이 외로웠지만, 인생이나 야구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며 "지금까지의 도전을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웃어 보였다.

고척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이상훈 코치, LG 마운드에 싸움닭 근성 심는다

두산 투수들 이 코치 지도 받고 환골탈태
친정팀 복귀…젊은 LG 투수들 성장 기대

이상훈 코치(사진)가 LG 마운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 코치가 '친정팀' LG로 돌아온다. 그는 올해 두산 퓨처스팀(2군)에서 투수코치로 활동했다. 지금은 해체된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에 이어 두산까지 비록 지도자 경력은 짧지만, 투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코치가 올 시즌 두산 투수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강한 정신력이었다. 두산 노경은(31)도 이 코치의 가르침을 받고 환골탈태했다. 그는 올 시즌 힘든 시간을 보냈다. 7월에는 2군에서 1군에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가는 시련을 겪었다. 당시 김태형 감독은 노경은의 부진 이유를 "심리적 부담"으로 꼽았다.

노경은은 2군에서 이 코치와 마주한 뒤 마음의 짐을 훌훌 벗어던졌다. 그를 바꾼 이 코치의 결정적 한마디는 "마운드 위에선 나쁜 남자가 돼라"였다. 노경은은 "이 코치님이 '네가 가진 성격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마운드 위에서만은 나쁜 남자가 돼서 상대 타자를 마치 잡아먹을 듯이 싸워야 한다. 네 공을 자신 있게 던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은 시속 150km의 공이라도 다르다'고 강조하셨다"며 "그 얘기를 듣고 마음가짐부터 바꿨다. '맞아도 된다. 칠 테면 쳐봐라'라는 생각으로 던졌더니 조금씩 내 공을 던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코치는 선수 시절에도 별명이 '야생마'일 정도로 공격적 피칭을 했다. 두산 투수들에게도 "네 공으로 타자를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강한 선수가 되길 바랐다.

LG에도 이 코치의 '싸움닭' 근성이 필요하다. LG에는 좋은 자질을 지닌 투수 유망주들이 많지만, 좀처럼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 마운드 위에서 자기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기술보다 멘탈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이 코치의 보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투수 육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과연 이 코치와 젊은 투수들이 만나 LG 마운드에 희망을 안길 수 있을지 궁금하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